

전국 소극장 연극 페스티벌 광주서 열린다

내달 15일까지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푸른연극마을 씨어터 연바람서
전주·부산 등 극단 5개 작품 공연
16~18일 '오월의 석류' 첫 무대



▶전국 7개 극단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이 16일부터 광주 씨어터 연바람에서 열린다. 사진은 극단 후암의 '흑백다방' 공연모습. <푸른연극마을 제공>

지역에서 극단을 운영하는 건 힘든 일이다. 여기에 연극 소극장까지 함께 꾸리고 있다면 그 어려움은 훨씬 더 커진다. 꾸준히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소극장 살림까지 함께 해 나가는 건 만만찮은 내공이 필요하다.

서로의 고단함을 함께 나누면서 연극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는 지역 극단들이 힘을 모아 '연극 페스티벌'을 기획한 건 '좀 더 나은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한 열망의 표출이었다.

춘천, 구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그리고 광주. 7개 지역에서 소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극단들이 함께 진행하는 '제 7회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이 16일부터 오는 7월15일까지 열린다. 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작품들은 각 지역에서도 다시 상연된다.

광주 공연은 푸른연극마을이 운영하는 씨어터 연바람에서 열린다. 첫 테이프를 끊는 작품은 '푸른연극마을'의 '오월의 석류'(16일 오후 8시, 17~18일 오후 5시)다.

2013년 거창국제연극제 희곡 공모 대상작(작가 양수근)으로 '오월의 석류'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엄마 제사날에 만난 순심, 순철, 순영 삼남매 이야기를 통해 광주오월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최창우가 연출을 맡았으며 이당금·윤미란·오성완·이세로미·양승주씨 등이 출연한다.

전주 극단 '명태'의 '연가'(20~21일 오후 8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뮤지컬이다. 진심을 다해 뒷바라지를 했으나 공무원에 합격하자 다른 여자랑 결혼해 버린 남편을 잊으려는

효린과 어릴적 상처를 딛고 사진작가가 된 제우가 전주 여행길에서 우연히 만나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 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희 작 최경성 연출로 박나래미, 최옥로, 양상아, 최성례씨 등이 출연한다.

부산 '극단 어니언 킹'의 '꿈'17 안티고네'를 무대에 올린다. 소포클레스의 원작을 각색한 작품으로 현대 사회에서도 끊임 없이 이어지는 권력, 탐욕,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주인공 안티고네, 크레온, 이스메네를 통해 들려준다. 전상배씨가 각색·연출했으며 황미아·우명희·서원씨 등이 출연한다.

'극단 후암'의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14일 오후 8시·15일 오후 5시)는 우연히 돈가방을 손에 넣게 된 50대 세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택시 운전하는 안광남, 안광남을 믿고 보증을 서 줬다 같이 망한 만두상, 안광남의 전처 고이랑 등은 누군가 차에 두고 내린 돈가방을 손에 쥐게 되면서 소동이 벌어진다.

대전 '극단 놀자'의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14일 오후 8시·15일 오후 5시)는 우연히 돈가방을 손에 넣게 된 50대 세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택시 운전하는 안광남, 안광남을 믿고 보증을 서 줬다 같이 망한 만두상, 안광남의 전처 고이랑 등은 누군가 차에 두고 내린 돈가방을 손에 쥐게 되면서 소동이 벌어진다.

유명 작가 이만희 원작으로 이정대가 연출했다. 최창우·오성완·이세로미가 출연한다. 티켓 가격 2만원. 문의 062-226-24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부산극단 '어니언 킹'의 '꿈'17 안티고네'.

호랑나무가시 아트폴리곤 21일까지 한·중작가 교류전

한·중 작가들이 국경을 넘어 예술 안에서 하나로 뭉친다.

광주시 남구 양림동 호랑나무가시 아트폴리곤에서 한·중작가 교류전 '유유자적하며 추세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한중 예술가들의 작업 방법'이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장작센터로 인연을 맺은 작가들이 심시일반 전시비용을 모아 자체 기획한 자리다. 광주 표인부씨를 주축으로 조정태, 엄기준, 황정후 작가를 비롯해 중국 작가 뤼판, 비엔가 798 당인화랑 책임 큐레이터가 뭉쳤다.

전시에는 권승찬·김재성·김진화·임남진·윤준영·양나

희·조정태·표인부·황정후 등 한국작가 10명과 연슈·뤼판·뤼사오둥·쉬웨이홍·천제·샤넌·양밍·찌우밍 등 중국작가 8명이 참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조정태 작가의 '붉은의자', 표인부 작가의 '바람의 기억-어머니의 땅'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삶을 되돌아 보게 한다. 중국 뤼판 작가의 '아르키메데스의 예언이 이미 실현됐다'와 뤼사오둥의 '평행상태2'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캔버스에 옮겨놓았다.

표인부 작가는 "앞으로도 예술가들이 지속적인 교류와



뤼사오둥 작 '평행상태2'

연계를 하며 한·중 양국간 감동을 완화시키고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70-4240-097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한 여름밤에 즐기는 한옥 음악회

내일 광주 장덕동 근대가옥·담양 서하당 공연

전통 한옥에서 한여름 밤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광주 장덕동 근대한옥에서 광산구가 주최하고 디엠씨아트컴퍼니가 주관하는 한옥음악회 '야호(夜好)! 달빛아래 여름 편'이 17일 오후 7시 진행된다.

연극배우 노희철씨가 펼치는 1인극 '시간 속으로(路) 여행'을 시작으로 극단 도깨비가 전래동화를 각색한 인형극 '단방기 똥방귀'를 공연한다.

이어 '더드림앙상블'은 쇼스타코비치 '왈츠', 영화 '여인의 향기' 삽입곡 'Por una cabeza' 등 클래식과 영화, 팝음악을 연주하고 '더드림앙상블'은 '오슬레미오', '우정의 노래', 드라마 '시크릿 가든' 삽입곡 등을 노래한다.

이제부터 작가와 함께하는 전통 외당(한옥지붕 추녀 끝 장식 기와) 만들기 체험도 준비해 즐거움을 더한다. 모든 공연은 무료 관람이고 외당 체험은 재료비 5000원을 받는다. 홈페이지(www.wol-bong.org) 확인. 문의 062-960-3827. 광주문화재단은 17일 오후 8시 담양

식영정 인근 서하당에서 두 번째 '풍류 달빛 공연'을 연다.

풍류남도나들이사업의 하나인 이번 공연은 '두번째 달과 풍류별곡'을 주제로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인다.

첫 무대는 소리꾼 고영열씨가 직접 작곡한 '찬란한 밤'과 '해월(海月)'을 들려준다. 에스닉 퓨전 밴드 '두번째 달'은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OST 오프닝 테마곡 '달빛이 흐른다', 드라마 '궁' OST '고양이 효과', '서쪽 하늘에' 등을 연주한다. 이어 고영열씨와 '두번째 달'이 함께 발표한 국악 프로젝트 앨범 '판소리 춘향가'로 무대를 마무리한다.

한편, '풍류 달빛공연'은 풍류남도나들이사업의 하나로 매일 보름달 가까운 토요일에 열리는 무료공연이다. 7월8일·8월 12일·10월7일에는 담양 한국사 박물관, 9월 9일 식영정 서하당에서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62-232-215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17일 담양 '풍류 달빛 공연'에 참여하는 소리꾼 고영열씨(가운데)와 밴드 '두번째 달'.

문화전당 내일 캐나다 작가 초청 '빨강이 최고야' 강연

광주문화재단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주한캐나다대사관 후원으로 17일 오후 2시 전당 어린이극장에서 초청강연 '빨강이 최고야'를 연다.

이번 강연은 캐나다 건국 150주년을 맞아 열린 한국·캐나다 특별교류행사의 하나로 캐나다 유명 동화작가 캐시 스티븐(사진)이 참여한다.

1부에서는 캐시 스티븐 작가가 강사로 나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표작 '빨강이 최고야' 이야기와 함께 그림 그리기, 컬러링북 색칠하기 등을 진행한다. 2부는 광주·캐나다 작가 7명이 모여



그림책 작가로서의 삶, 가치관 등을 공유한다. 지역 참여 작가는 이현, 이성지씨 등이다. 강연회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 등 반 가족(6세 이상 권장)은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강연 당일 오후 1시부터 현장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100명 모집. 참가비 무료. 문의 062-670-743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